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신년      제목 : 감사하는 해      성경: 마태복음 5장  
38-48절

-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나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5:38-48)

올해는 감사하는 해가 됩시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일지 본문 말씀에서 살펴봅시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전환하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우리는 무언가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의 상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감사의 상황이 우선적이기 보다는 감사의 상태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해보자. (우선적이라는 표현은 두가지 모두 다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복도 받지 못하러면서 무엇하러 그런 혹독한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반문할 것이다.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할라치면 당신의 선행 때문에 상대방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군가 선한 사람이 당신에게 선을 베풀면 그것이 당신에게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계산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등이 복이 있다고 하셨지 않는가? 이런 맥락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역설하러 하셨다고 볼 수 있다.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율법이다. 이 원칙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대로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멸망하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내셨다.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율법답게 하면서도 율법보다 더 선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곧 사랑의 법이다.

-오직 예수님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따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악에 대항하기 보다는 악한자에게 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미워한다.

-우리는 악한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악을 방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악한자가 뺨을 때릴 것이라고 한 것 보니, 악을 방관하는 것 같지는 않다.

-뺨을 맞을지라도 같이 치고박고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곧 복이다.

-악한자의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은 악에게 휘둘리는 것이요, 그것이 악한줄 알면서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할 때 악한자가 그것을 알고 공격을 해도 나는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선행이요, 하나님이 바라는 의로운 것이요, 그런 상태가 곧 감사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감사하자.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자.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